

# PS 호투... WBC 대표팀 '든든한 듀오'



## 이강인 교체 출전 PSG 3연승 화력으로 리그 선두

이강인이 교체로 출전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이 레버쿠젠(독일)을 상대로 무려 7골을 쏟아내는 화려쇼를 펼치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에서 3연승의 신바람을 앞세워 선두로 올라섰다.

PSG는 22일(한국 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UCL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7-2 대승을 거뒀다.

리그 페이즈에서 3연승(골 득실+10)을 달린 PSG는 역시 3연승에 성공한 인터 밀란(골 득실+9), 아스널(골 득실 +8 이상 승점 9)과 승점이 같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앞선 2경기에서 모두 비겼던 레버쿠젠(승점 2)은 첫 패배를 당하고 27위로 떨어졌다.

PSG의 미드필더 이강인은 팀이 5-2로 앞서던 후반 18분 세니 마울루를 대신해 그라운드투입 후 추가시간까지 30여 분을 뛰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인 기대했던 2년 만의 UCL 득점은 터지지 못했다.

이날 PSG와 레버쿠젠은 전반에 1명씩 '퇴장 카드'를 받아 서로 10명이 싸우는 체력전을 펼쳤다.

문동주 PO 1:3차전 MVP 활약 한화 가을 에이스로 자리매김 원태인 와일드카드-준PO 수훈 삼성 고비마다 V 견인차 역할 내달 대표팀 평가전 핵심 기대



삼성 원태인



한화 문동주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원태인(25)과 문동주(21)가 연일 호투하면서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을 준비하는 국가대표팀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한화 이글스 문동주는 2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3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 경기 6회 말 구원 등판해 4이닝을 피안타 2개, 탈삼진 6개,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 투수가 됐다.

18일 1차전에서도 2이닝 피안타 1개, 탈삼진 4개를 기록하며 역시 1점도 내주지 않은 문동주는 이번 PO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1차전에서는 최고 시속 161.6km로 올해 KBO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며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원태인은 NC 다이노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1승 1패로 맞선 SSG 랜더스와 준PO 3차전 등 시리즈의 고비마다 나

와 팀 승리를 견인하는 에이스 역할이 돋보였다.

원태인과 문동주는 11월부터 체코, 일본과 평가전으로 WBC 준비를 시작하는 대표팀에서도 마운드의 핵심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일부 한국계 외국 국적 투수들의 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원태인은 올해 정규시즌 12승 4패, 평균

자책점 3.24를 기록했다.

국내 투수 가운데 다승 단독 1위에 올랐고, 평균자책점은 임찬규(LG 트윈스)의 3.03에 이은 2위다.

문동주는 정규시즌 11승 5패, 평균자책점 4.02의 성적을 냈다.

국내 투수 다승 공동 2위에 구속은 KBO리그 외국인 투수들과 견줘도 가장 빠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2강 이긴 만년 꼴찌... 여자배구 혼전의 개막

### 도로공사, 최강 전력으로도 주포 빠진 페퍼에 2-3 달미

18일 막을 올린 프로배구 2025-2026시즌 V리그의 우승 후보로 지목된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잇달아 개막전에서 져 여자부는 절대 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지난달 열린 여수·농협컵(컵대회)에서 나란히 결승에 올랐던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는 16일 진행된 V리그 개막 미디어데이 때 7개 구단 감독을 대상으로 한 우승 후보 투표에서 표를 양분했다.

기업은행이 5표, 도로공사가 2표를 받



득점 후 기뻐하는 페퍼저축은행 선수들.

한국배구연맹

았다. 방송해설위원들도 대부분 기업은행과 도로공사를 '2강' 후보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규리그 투쟁을 열어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기업은행은 19일 외국인 공격수 빅토리아 덴착(등록명 빅토리아)과 아시아 쿼터알리사 칸젤라를 모두 투입하고도 '쿠바 특급'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를 앞세운 GS칼텍스에 1-3으로 패했다.

이어 도로공사도 최강 삼각편대로 평가되는 레티차 모마 바스코(등록명 모마)-타나차 쑥숯(등록명 타나차)-강소휘

를 가동하고도 외국인 주포 조이 웨딩턴(등록명 조이)이 부상으로 빠진 '만년 꼴찌팀' 페퍼저축은행에 2-3으로 덜미를 잡혔다.

개막전 한 경기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올 시즌 여자부는 치열한 순위 싸움이 불가피한 혼전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흥국생명도 공격과 수비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은퇴했고, 정관장은 쌍포로 활약했던 반야 부키리치(등록명 부키리치)-메가왓티 피터위(등록명 메가) 조합이 해체됐다.

##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최 광 저서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북앤퍼플

화제의 신간!!

#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

북앤퍼플 (02-2277-0220)